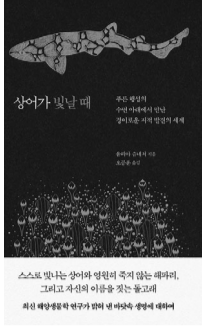


미지의 바닷속 경이로운 해양생물의 세계

상어가 빛날때

율리아 슈네처 지음, 오공훈 옮김

18번째 생일을 맞은 독일 한 소녀가 남태평양 피지로 여행을 떠났다. 부모는 바다에 매료된 딸의 소원을 가까이 들어주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산소통을 메고 들어간 바닷속은 경이로웠다. 소녀는 산호초와 거북이, 암초상어, 형생색의 물고기들을 보며 '너무나 아름답고 색다른 수중세계'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리고 해양생물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소녀는 대학에서 해양미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심해생물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 서울 신촌역 스타광장에서 정부에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그린피스 회원들. /연합뉴스

색소로 인해 특정 영역대(440-540 나노미터)의 파장을 볼 수 있다. '스웰사크' 등이 갇혀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생체 형광'을 발산하기 때문이다. 지중해에 살고 있는 흥해파리는 노화와 관련된 특별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성체는 생식세포(난자·정자)를 생성한 후 죽지만 수정체는 유생으로 자라 폴립 단계를 거쳐 무성생식을 한다. 이런 '전환 분화' 과정을 거쳐 흥해파리는 무한 증식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바다의 '배고픈 물고기'들만이 이들의 천적일 뿐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돌고래 역시 미지(未知)의 세계다. 돌고래는 인간보다 뇌중량 2배나 높고 뉴런과 신경교세포 농도가 3배나 많으며, 생후 7개월 때부터 겨울에 비친 자기모습을 의식할 정도로 뛰어나다. 특히 돌고래는 '서명 휘파람'(signature whistle)으로 통하는 이름도 갖고 있다. 생후 첫 달에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지으며, 이를 평생 동안 상대 돌고래에게 자신을 소개하

거나 말을 걸 때 사용한다. 수십년이 지나도 예전에 찍었던 돌고래의 '서명 휘파람'까지 기억을 한다고 한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생소한 해양생물을 소개하는 한편 '플라스틱 오염' 등 연구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오염, 남획, 소음공해, 심해채굴, 지구온난화, 해수면 온도상승, 대기중 이산화탄소 증가)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경각심을 일깨운다. 지구는 '플라스틱 행성'이나 다를

없다. 지난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63억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태평양에 프랑스 면적만한 쓰레기 섬이 떠다니고, 1만m 깊이의 마리나 해구에서도 비닐봉지가 발견된 정도다. '빙하코어'(극지방에 오랜 기간 묻혀있던 빙하에서 추출한 얼음 조각)와 동물 몸속, 심지어 아기의 태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만큼 심각하다. 저자는 "아이들이 플라스틱 행성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다는 지구표면의 3분의 2에 걸쳐 분포하지만 겨우 20% 정도만 탐사됐다. '열수분출공'에 사는 생물 등 아직 연구해야 할 분야가 널려있다. 저자의 바람은 단순명료하다. "우리가 바다에서 잠자고 있는 매혹적인 비밀을 계속 밝혀내려면 바다는 물론이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계속 지켜내야 한다." <푸른숲·1만85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밤은 내가 가질게=일곱 편의 단편소설로 비춰보는 절망 속 희망의 이야기들. '어떤 진심', '완전한 사교'를 비롯해 '애도의 방식', '바늘 끝에서 몇 명의 천사가', '미워하는 일', '미도', 표제작 '밤은 내가 가질게'라는 제목의 단편들이 수록돼 있다. 모든 작품에서는 일상이 파괴될 만큼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등장한다. 직장을 잃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여동생,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엄마 등 인물들은 복잡한 현실에 순응하지, 극복할지 질문을 받는다. <문학동네·1만6000원>

▲9988 건강습관=백세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 무조건 오래 사는게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생활건강 비법을 담았다. 초판의 내용을 개정하면서 건강관리법의 대세로 떠오른 맨날 걷기(어싱), 코로나 19 이후 새롭게 부상하는 면역 전략들, 장수를 위협하는 스마트폰 중독과 예방법 등을 소개한다. 아침에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음식을 오래 씹어 소화력 증진시키기 등 곧바로 일상 속에서 따라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들도 알려준다. <리스컴·1만6800원>

▲육음이 옥남아=어든 일곱 어머니와 나는 다복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부제는 '어머니 손바닥에 제 손을 대어 봅니다'인데, 생명의 원천인 어머니를 향해 바치는 헌사와 같다. 2009년부터 어머니와 나는 생생한 대화, 어머니의 말씀 등을 받



아쓰기해 십여 년 동안 묶어내 산문집으로 만든 것. 어릴적 국수를 삶아주던 모습, 과수원 집 근처에서 리어카가 다니던 천년 풍경 등 고즈넉한 풍경들을 떠올리게 한다. <걷는사람·1만5000원>

▲일주일에 세 번, 동네문화센터에 놀러 갑니다=노인이 되어도 문화센터라는 놀이터는 배움의 즐거움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된다. 68세 할머니인 주인공이 동네문화센터에 다니면서 중국어, 펜화, 댄스 스포츠를 비롯해 블로그 만들기 등을 배우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낸다. 처음에는 치매 예방 겸 등렸었지만 하루 하루 능동적인 배움으로 '갓생'을 살게 된다. <세미콜론·1만6800원>

일상이 된 패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뒤집다

패션의 시대: 단절의 구간

박세진 지음



"과거에 패션이 사람의 걸모습을 달라 보이게 만드는 마법의 날개였다면, 이제 패션은 어떤 이의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는 단서다."

패션의 영역은 끊임없이 확장 중이다. 옷, 신발, 주얼리 등 전통적 개념을 넘어 먹고, 쉬고, 즐기는 우리의 일상 자체가 패션과 결합돼 있다. 패션 산업은 전보다 더 대중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으면서 우리 눈에 더 자주 띄게 되었고 문화에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력도 커졌다.

패션 칼럼니스트로 패션 전문 블로그 '패션북'을 운영하며 '패션 vs 패션', '일상복 탐구: 새로운 패션' 등을 쓴 박세진의 신작 '패션의 시대: 단절의 구간'은 '패션의 시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보고서다.

책은 '패션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패션과 함께 가는 것들', '패션의 영역 확장과 새로운 정착지' 3부로 나눠 이야기를 풀어간다.

루이 비통, 구찌, 발렌시아가 등 세계 유명 패션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은 넘치는 아이디어로 정교한 세계관을 구축해 자기만의 패션 세상을 만들고 서로 경쟁하며 영역을 넓혀나간다.

저자는 하이 패션 브랜드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더 빠르게 흡수된 출발점을 '스트리트패션과의 결합'에서 찾고 그 중심에 2015년 구찌에 입성해 디자이너 디자이나 알레산드로 미켈레를 놓는다. 그는 첫 패션쇼에서 "시골 어딘가의 젊은이가 부모님, 할머니, 삼촌이 옷장에 보관만 하고 있던 1970-80년대 디자이너 컬렉션을 있는 대로 몸에 걸친 것처럼 보이는" 모델들을 캣워크에 세우며 구찌의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깨트린다. 스트리트 패션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세상에 많고 많은 '하얀색 티셔츠'와 후디, 스웨트 셔츠 역시 고급 브랜드와 결합하며 새로운 수요층을 만들어낸다.

패션은 변화하는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스트

리트 패션이 주류 패션으로 진입하며 젠더 이슈, 문화 다양성, 인종 문제 등 그동안 패션에 누적이었던 문제점들이 표면화됐고 존중과 다양성을 원하는 요구에 대응하며 패션계는 변화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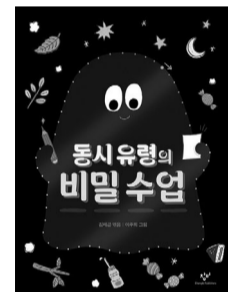
화려한 속옷 패션쇼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던 빅토리아 시크릿은 자기 몸 긍정주의, 성적 지향, 건강 등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퇴출됐다. 중국 출신 모델이 젓가락으로 스파게티를 먹는 광고 캠페인으로 중국에서 인종 차별 논란을 일으킨 돌체앤가바나는 불매운동에 직면했다.

패션은 예술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변화를 꾀한다. 1960년대 입생로랑과 몬드리안을 비롯해 쿠사마 야요이, 제프 쿤스과 작업한 루이 비통, 앤디 워홀과 결합한 켈빈클라인이 대표적이다.

책은 '패스트패션'의 등장으로 환경문제와 노동문제의 중심에서 있는 패션업계가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해 시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마티·1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동시 유령의 비밀 수업=동시들을 그저 감상하는 것이 아닌 활동에 접목해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점 잇기, 초성 퀴즈, 스무고개 등 동시에 들어갈 빈칸 단어를 채워 넣을 수 있다. 어울리는 문장을 고르는 등 조금씩 고차원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듯 읽을 수 있다. 동시의 행과 연을 자유롭게 바꿔보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동시로 창작하도록 돕는다. <창비·1만2000원>

▲맨날 놓고 싶어=날다람쥐 쏘이는 장난꾸러기인데, 집에 불이 난 자신을 도와준 숲속 친구들에게 고마워한다. 그러면 서 다들 기피하던 업무인 '퐁차 지킴이'를

맡게 되는데, 친구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다. 코로나로 단절되어 있던 '코로나 키즈'들이 쏘이의 모습을 보면서 관계 맺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특서주니어·1만3000원>

▲겨울의 코트를 만들러 가요=토끼 '사키'는 엄마가 입던 코트를 물려받았다. 다락방 상자에 들어있던 빨간 코트 한 벌은 따뜻했지만 너무 커서 어울리지 않았다. 미코 아줌마네 양장점에 들러 코트를 고치기로 하는데, 코트의 무늬부터 촉감까지 세세하게 결정한다. 옷의 촉감 표현 등을 다양한 음성상징어로 표현한다. <주니어김영사·1만4000원>

직항로 개설 카페리여객선 6월 26일 취항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사통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 30분 소요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유)신진해운 061)244-0522